

익산 상권 르네상스 본격화

중기부 · 전북도 승인 절차 남아... 주민 설명회 31일 개최

익산 영등동에 추진되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업계획 협의를 마무리하는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선정된 이후 지난 1월부터 2달간 총 4회에 걸쳐 중기부 상권 전문가와의 회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고도화했다.

또래로 상권 보유자들과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해 자생력을 높이고 특화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5개

년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달 초 중기부와 상권 르네상스 사업계획 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오는 29일까지 상권 르네상스 사업 관련 주민공람 공고를 거쳐 전북도와 중기부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

시는 주민들과 사업 추진 절차를 공유하기 위해 오는 31일 영등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상권 활성화 구역과 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연차별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안내해 상권 상인들을 포함한 주민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

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사업은 영등 2동 810개 점포, 13만8,206㎡를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역 상인과 구역 내에 위치한 대형마트와 상생을 목표로 집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5년간 80억원(국비 50%, 도비 10%, 시비 40%)의 예산이 투입되며 사업비 집행 등 우수상권 선정 시 최대 12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규모 점포와 지역기업과의 상생, 백제단길의 맛의 거리 조성, 개성 넘치는 청소년 거리 조성, 비대면 쇼핑 플랫폼을 반영한 스마트 상생거리 조성, 상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이다.

익산=이득훈 기자



익산시가 한국여행업협회 KATA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500만 관광도시 조성 '맞손'

익산시 · KATA, '익산 방문의 해' 관광 활성화 공동마케팅 협약

익산시가 한국여행업협회 KATA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다양한 테마로 즐길 수 있는 여행상품 개발로 '익산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500만 관광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한다.

시는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현을 시장과 유재구 시의회 의장, KATA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마케팅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2022~2023 익산 방문의 해' 성공 추진을 위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신규 여행상품으로 공동 웹투어를 추진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익산은 미륵사지, 국립익산박물관, 왕궁리유적, 왕궁보석테마관광지 등 다양한 테마로 즐길 수 있는 여행 스팟이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연인들의 핫플레이스 교도소 세트장에서 최수복 체험 고백팔찌 등을 체험해 볼 수 있으며, 달빛소리수목원, 고스락 아가페정원 등에서 카페투어와 정원을 감상할 수 있다.

시는 '익산 방문의 해' 기간 동안 소규모 공연과 이벤트 등 다채로운 운영 방안을 준비 중이다.

정현을 시장은 "익산 방문의 해를 통해 관광도시 익산의 이미지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코로나19 시대에 변화한 관광객들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놀러오고 싶은 익산', '다시 찾는 익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TA(한국여행업협회)는 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된 여행업체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전국적으로 실질적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회원사만 1천 200여개 정도이다. /익산=이득훈 기자

새정부 대선공약 국정과제 반영 활동 실시

황철호 부시장 국회 방문, 송석준 의원 등 면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 이후 부처 업무보고가 시작된 가운데, 24일 황철호 군산시 부시장이 국회를 찾아 송석준 국토위 의원 등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실시했다.

먼저 국민의힘 호남동행(군산) 의원인 송석준(국토위) 의원을 찾아 윤 당선인의 대선공약인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새만금 남북 3축 도로 건설 등 국토교통위원회의 소관 군산시 관련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 인수위 정부수립행정분과위원회 간사인 이용호 의원실(남원, 임실, 순창)을 찾아 윤 당선인의 전라북도 대선공약이 국정과제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력을 건의했다.

또한, 정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중앙부처의 재정여건 변화



24일 황철호 군산시 부시장이 국회를 찾아 송석준 국토위 의원 등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실시했다.

가 예상돼 지역구 국회의원인 신영대 의원을 방문,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각종 현안사업을 공유했다.

황 부시장은 금번 방문 이후에도 항

후 지속적으로 중앙부처·기재부 및 국회를 방문해 2023년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군산=남현봉 기자

금마한옥체험마을, 복합 개발 검토

익산 금마한옥문화체험마을이 복합 개발이 가능한 백제 한류 전통문화 복합체단지의 사업 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시는 고도보존육성사업 가운데 금마한옥문화체험마을의 사업계획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3일 금마면사무소에서 금마, 왕궁면 등 고도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금마한옥문화체험마을이 백제 한류 전통문화 복합체단지로 변경되면 전통속박과 문화시설 등 기존 2개 단지에 복합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

다.

또한 가로변의 대지들은 백제 한류 전통문화 복합체단지의 사업 취지에 부합한 범위에서 전통 특산물 판매시설 등 개별 건축이 가능하도록 조정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등 시 자체 예산을 절감하고 가로경관 개선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주민의견 수렴이 완료되면 익산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와 전북도 협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변경(안에 대해 승인 요청할 예정이다.

익산=이득훈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홈페이지, 차량민원 안내서비스 간편 메뉴 신설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군산시 홈페이지 내 '차량민원' 메뉴를 추가 신설해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기존 시 홈페이지 내 민원안내 서비스 중 차량민원 관련 메뉴에 신규로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기간조회 및 검사예약 메뉴를 추가했다.

이는 시민이 손쉽게 온라인으로 자동차 과태료를 납부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본인의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일자를 확인해 직접 검사 예약까지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자동차 과태료 대상자들은 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민원안내' → '차량민원' →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를 클릭하고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세외수입납부) 바로가기'로 들어가서 고지받은 전자납부번호로 빠른 납부를 할 수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

화학사고 안전한 군산 만들기 총력

민·관·산·학 협력체계 강화로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군산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24일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정기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는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관·산·학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회의에는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 17명이 참석했다. 이날 ▲사고대비 물질로 인한 사고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행동요령 고지 및 유해성 정보고지, ▲화학물질 사고지역의 오염피해 조치, 복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 대응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점검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별 일정별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타지역 벤치마킹 등 우수사례를 군산시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사항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익산시,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권고

익산시는 최근 10대 확진자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소아·청소년 백신 예방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나섰다.

시는 이번 주부터 12~17세(2005~2010년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2차 접종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접종 방법과 동일하게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에 남아있는 잔여 백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비명단이나 SNS 등을 통해 예약한 뒤 당일 접종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미접종자의 중증화율은 3차 접종 완료자 대비 약 40.6배, 치명률은 약 23.7배 높으며 백신 접종 시 중증화율·사망률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고위험군의 경우 미접종자 중심으로 위중증자와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자연감염 이후

생긴 합병증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보다 훨씬 더 심각해 백신 접종이 적극 권고되고 있다.

소아·청소년 고위험군 범위는 △만성 폐·심장·간·신(신경·근육) 질환 △당뇨, 비만,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만성질환으로 사회복귀시설 등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소아 등이며 이들은 의사 소견에 따라 접종이 권고된다.

익산=이득훈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